

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

2024년 2/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24. 3.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대상 기간	3
3. 조사실시 기간	3
4. 조사대상	3
5. 조사방법	3
6. 조사항목	3
7. 집계방법	3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3
II. 202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4
1. 종합 경기전망	4
2. 응답업체 분포	5
3. 항목별 경기전망	6
4. 업종별 경기전망	6
5. 규모별 경기전망	6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7
7. 지역별 경기전망	7
8.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 대내외 리스크	8
9. 연초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 진행예정	8
가. 투자축소, 보수적입장	9
나. 투자확대	9
10. 올해 우선 투자 영역	10
11. 혁신투자 비중	10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영향	11
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	11
13.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고려요소	12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4년 1/4분기(1, 2, 3월) - 실적기간
- 2024년 2/4분기(4, 5, 6월)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4년 3월 5일 ~ 2024년 3월 15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08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9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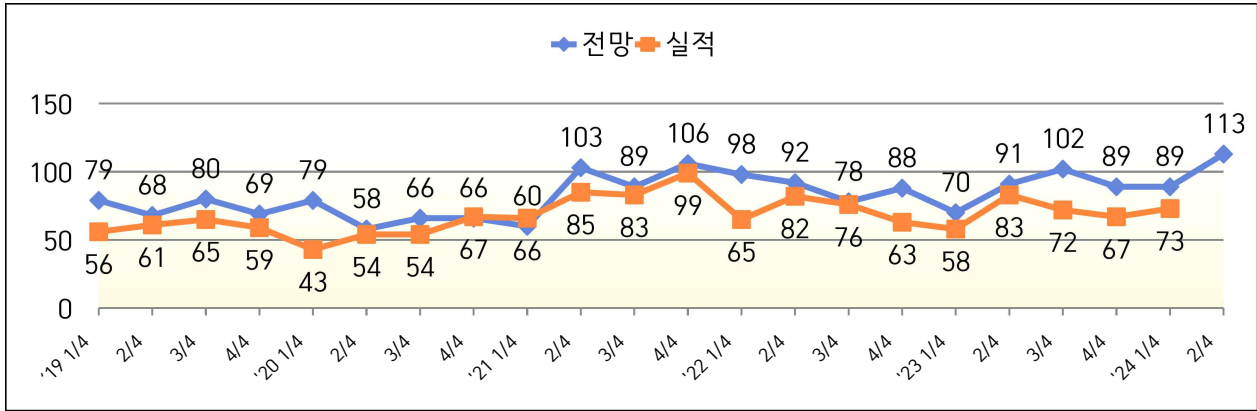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BSI '113', 3분기만에 기준치 상회

-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4년 2분기 지역 제조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조사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08개 제조업체에서 응답한 「2024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113'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2분기 경기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2024년 1/4분기 실적지수 '73')
-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23년 3/4분기 이후 3분기 동안 이어지던 기준치를 밑도는 하락세에서 벗어난 수치로 향후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2분기 전망치(113)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조업 정상화와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소비심리개선에 따른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4분기 실적지수는 '73'으로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79	68	80	69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실적치	56	61	65	59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2/4분기 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6.3%(5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33.3%(36개사),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4%(22개사)로 나타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분	2024년 1/4분기 전망	2024년 2/4분기 전망
호전	25.7%(29개사)	33.3%(36개사)
비슷	38.1%(43개사)	46.3%(50개사)
악화	36.3%(41개사)	20.4%(22개사)
계	100.0%(113개사)	100.0%(108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117), 영업이익(104), 설비투자(101)는 기준치 ‘100’을 넘으며 2분기 호전을 예상한 반면, 자금사정(97)은 기준치를 소폭으로 밑돌며 다음 분기에도 부진을 전망함

【 2024년 2/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전망)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117	104	101	97

4. 업종별 경기전망

- 2/4분기 우리지역 제조기업들은 업종별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선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105), 화학(114), 섬유 의류(111), 식음료(110) 관련 업종은 2분기 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기계금속(87), 비금속광물(75) 관련 제조업의 경우는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을 전망함
- 특히, 비금속광물(75) 업종은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분기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됨

【 2024년 2/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전망)

구분	자동차	화학	기계금속	섬유 의류	전기전자	식음료	종이나목	비금속광물	기타
BSI	105 (75)	114 (90)	87 (96)	111 (114)	100 (67)	110 (113)	100 (71)	75 (71)	100 (100)

※ ()는 2024년 1/4분기 BSI 전망 수치

5. 규모별 경기전망

- 기업 규모별로는 우리지역 대기업·중견기업(112)과 중소기업(113)으로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면서 2분기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2/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112 (88)	113 (89)

※ ()는 2024년 1/4분기 BSI 전망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기업의 매출유형별로는 내수기업은 ‘115’로 기준치 ‘100’을 넘어 2분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출기업은 ‘100’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여 기준치에 도달함

【 2024년 2/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분	전체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113 (89)	100 (89)	115 (81)

※ ()는 2024년 1/4분기 BSI 전망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2024년 2/4분기 도내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주(113), 익산(110), 군산(124), 전북서남(105)지역 모두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2/4분기 지역별 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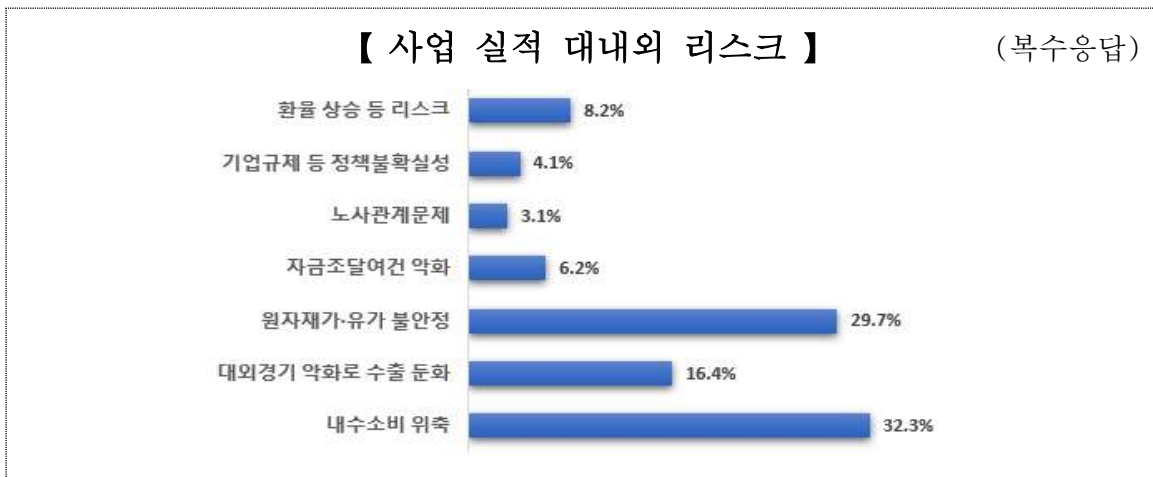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분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BSI	113 (68)	110 (85)	124 (100)	105 (100)

※ ()는 2024년 1/4분기 BSI 전망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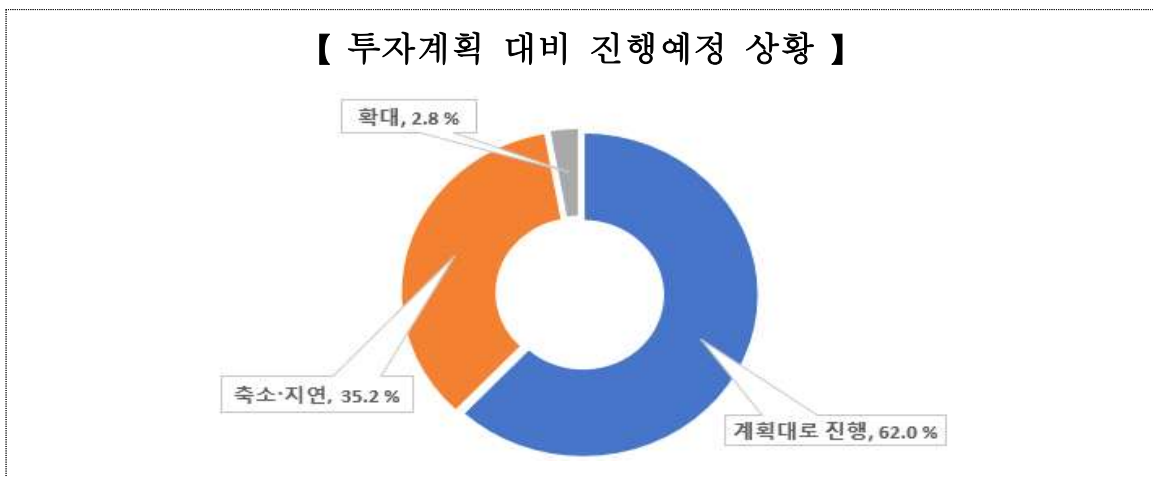
8.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 대내외 리스크

-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2.3%’가 ‘내수소비 위축’을 꼽은 가운데, ‘원자재가·유가 불안정(29.7%)’, ‘대외경기 악화로 수출 둔화(16.4%)’, ‘환율 상승 등 리스크(8.2%)’, ‘자금조달여건 악화(6.2%)’, ‘기업규제 등 정책불확실성(4.1%)’, ‘노사관계문제(3.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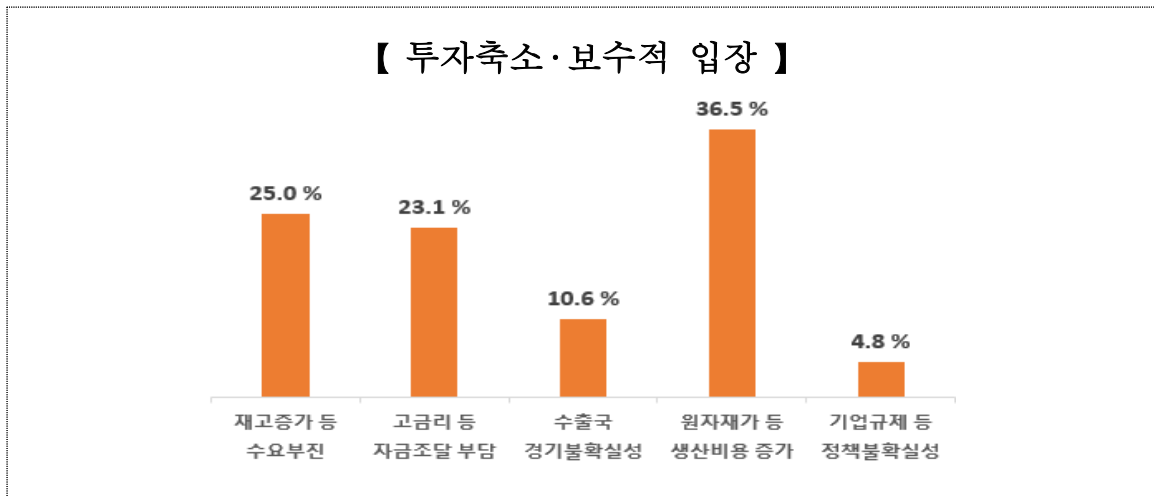
9. 연초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 진행예정

-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 대비 진행예정 상황에 대해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당초계획보다 축소·지연’이라는 응답은 ‘35.2%’, ‘당초계획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2.8%’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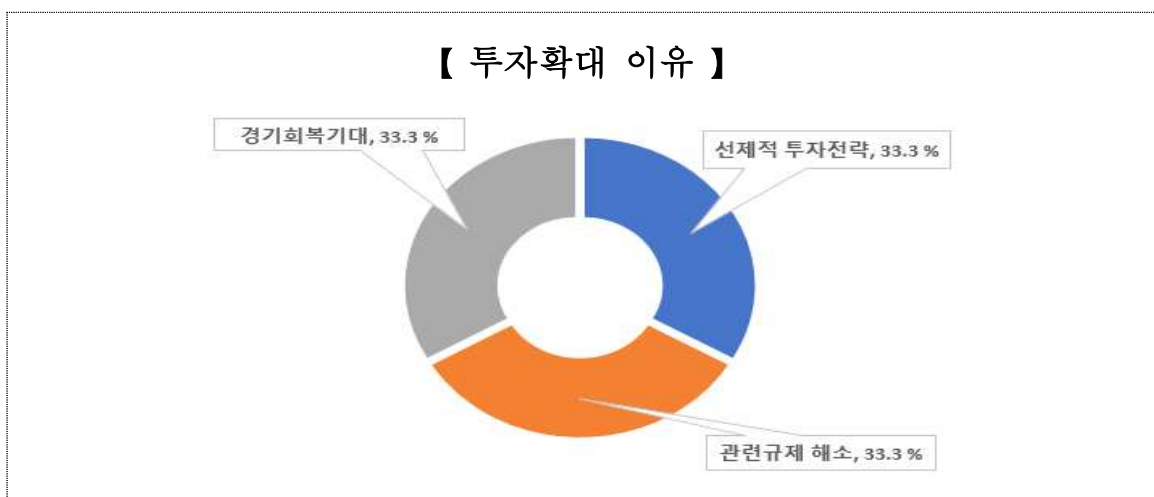
가. 투자축소·보수적 입장

- 투자가 축소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재고증가 등 수요부진(25.0%)’,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3.1%)’, ‘수출국 경기불확실성(10.6%)’, ‘기업규제 등 정책불확실성(4.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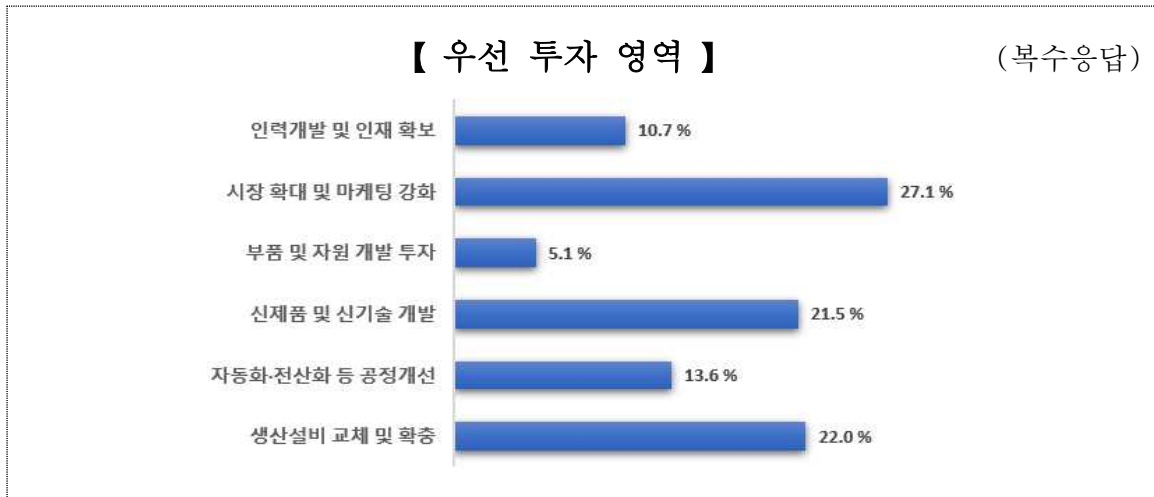
나. 투자확대

- 당초 계획한 수준보다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회복기대(33.3%)’, ‘선제적 투자전략(33.3%)’, ‘관련규제 해소(33.3%)’로 응답비율이 동등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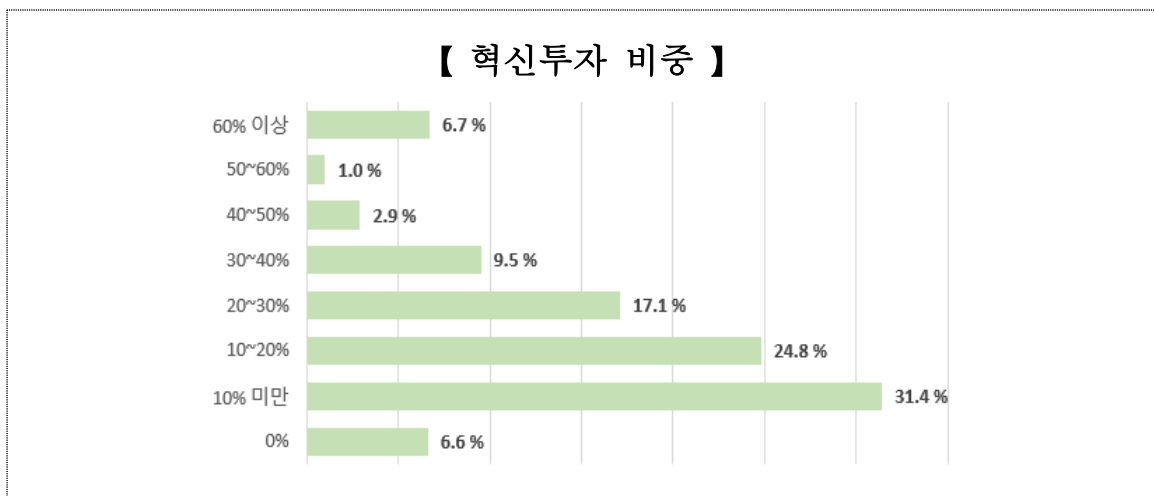
10. 올해 우선 투자 영역

- 올해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22.0%)’,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21.5%)’, ‘자동화·전산화 등 공정개선(13.6%)’, ‘인력개발 및 인재 확보(10.7%)’, ‘부품 및 자원 개발 투자(5.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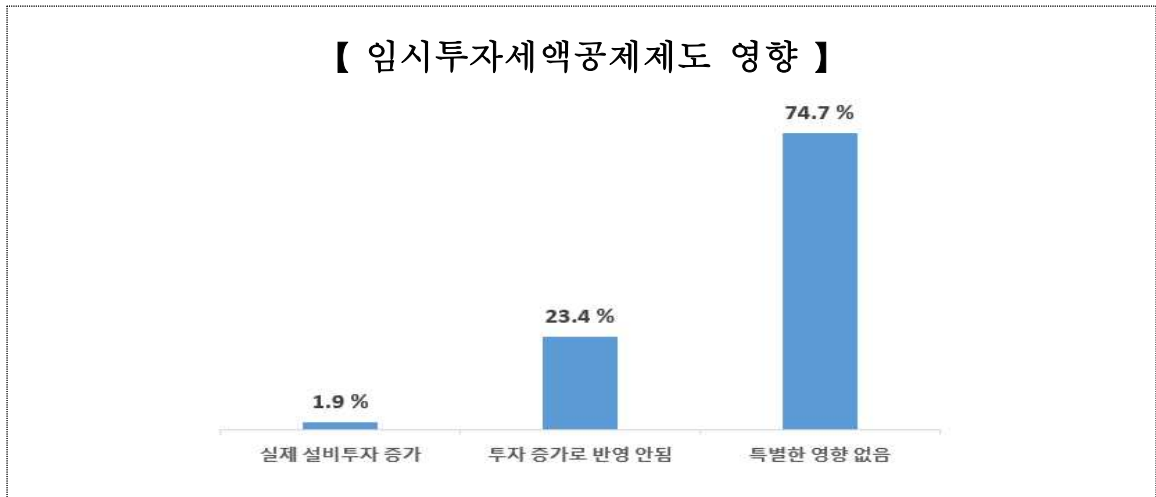
11. 혁신투자 비중

-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1.4%’가 ‘10%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10~20%(24.8%)’, ‘20~30%(17.1%)’, ‘30~40%(9.5%)’, ‘60% 이상(6.7%)’, ‘0%(6.6%)’, ‘40~50%(2.9%)’, ‘50~60%(1.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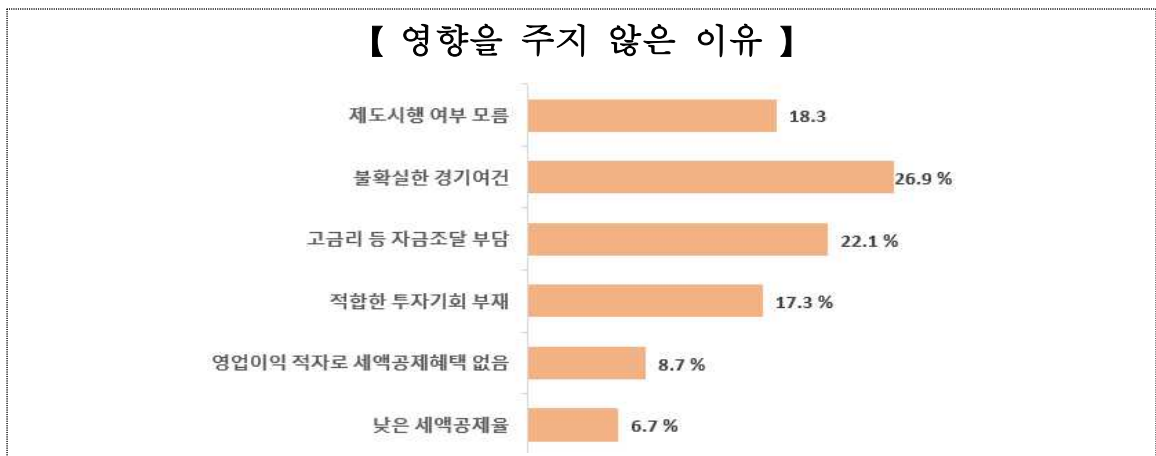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영향

- 지난해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영향 없음’ 이라는 응답이 ‘74.7%’ 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투자 증가로 반영 안됨’ 이라는 응답은 ‘23.4%’, ‘실제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짐’ 이라는 응답은 ‘1.9%’ 로 조사됨



가.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설비투자계획상 규모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6.9%’ 가 ‘불확실한 경기여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2.1%)’, ‘제도시행 여부 모름(18.3%)’, ‘적합한 투자기회 부재(17.3%)’, ‘영업이익 적자로 세액공제혜택 없음(8.7%)’, ‘낮은 세액공제율(6.7%)’ 순으로 조사됨



13.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고려요소

-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이라는 응답이 ‘48.1%’ 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흐름 등 이용가능 자금상황(20.4%)’, ‘경쟁업체 간 시장상황(15.7%)’,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11.2%)’, ‘정부정책 및 인센티브(4.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